

‘뗏다방’ 천도재 판매 기승 불교계 관리제도는 ‘全無’

[기획] 불교 상장제 관리제도 · 내규 필요하다

최근 불교 상장제 상품에 대한 소위 ‘뗏다방’ 형식의 방문판매가 성행하고 이로 인한 피해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단 차원의 상장제 상품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 보은군은 최근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방문판매 방식으로 어르신들에게 위패와 불상 등을 고가에 판매하거나 천도재를 지낼 것을 권유하는 이른바 ‘유사포교당’, ‘뗏다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보은군은 1월 19일부터 보은읍이장협의회, 통합사회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의 이번 단속은 합안 A사찰이 진행한 위패·천도재 방문판매에 대한 항의가 빚발치며 시작됐다. 이 사찰은 포교당 형식으로 간판을 건 뒤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한 후 불교 상장제상품을 고가에 판매해왔다.

김소형 보은군청 경제계과 주무관은 “2012년 이 사찰의 행위로 지역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단속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지난해 6월에는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가 생필품 등 선물매포와 노래와 유희 등을 미끼로 과도한 천도재 및 위패 비용을 요구하는 등에 주의 지침을 발송하기도 했으며, 11월에는 전북지역에서 18개 불교단체들이 합안 A사찰의 행위가 비불교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합안 A사찰이 속한 대각회 측은 “자녀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구입한 어르신들로 인해 법인으로도 많은 항의가

오고 있으며 반환소송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에서도 2010년대 해인사 고불암 감원이었던 한 스님이 상장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방문판매업을 개설하고 영업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마진 노린 위탁업체도 성행

최근에는 사찰과 스님의 직접적인 운영 외에도 외부 업체를 통한 위탁운영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따르면 동두천 B사찰의 경우 사찰 주지 스님이 포교당을 위탁운영했고, 역시 위패를 판매한 운영업체가 부도가 나자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노인 대상으로 방문판매 성행

피해 많아지자 보은군 단속 나서

동산 활용 관련제도 미비 ‘허점’

사정기관 감독 및 신도교육 필요

유정희 전북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불교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 이후 위탁운영 등으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비불교적인 방법에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것은 불교계에 동산이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리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활용한 사업의 경우 종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되어있지만 불상, 위패, 천도재 등 문화적 자산의 활용에 관한 관리체제는 없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사찰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비해, 종단에서 인허가 등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사찰의 사례 때문에 정상적인 사찰운영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문제 발생 시 엄단하는 등 종단 내 사정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관련 제도 완벽해야

전문가들은 불교계가 문화적 자산에 대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학과 교수는 “장사법 개정으로 신고제가 도입되고 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사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계약서·약속이행서 등을 통해 불상, 위패와 천도재 판매에 있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내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가의 불교 상장제 관련 비용에 대한 공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한국가톨릭의 경우 1만원씩 반던 49제미사를 최근 무료로 진행한다고 공개했으며, 일본에서도 관장·총무 등 스님에 따른 재의 비용이 사찰에 공개됐다. 인천 용화사의 경우에는 평생 위패와 재에 10만원 정액제를 도입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추선공양금의 의미가 강한 불교 상장제 상품은 신심과 신도 만족 부분이기 때문에 액수를 강제하는데 무리가 있다. 하지만 천차만별인 현재 상황에서 서민층을 위한 기본 수준을 정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판매를 통한 피해발생도 신도교육을 통해 줄일 수 있다. 불교전통문화보존회 등 신도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고 감사, 교육하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베트남에 한국불교 자비 전해도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참사람봉사단(단장 김의창)은 1월 12일부터 7일간 베트남 빈중성 바우방현에서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재학생 30명이 참가한 동국참사람봉사단은 베트남 빈중성 바우방현에 위치한 썬반초등학교에서 교육환경 정비 작업과 초등학생 대상 문화, 예술, 체육 등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지종 새 통리원장에 인선 종사

19일 임시 총회서 만장일치로 선출

불교총지종 제18대 통리원장에 현 총무부장인 인선 종사(사진·관성사 주교)가 선출됐다.

불교총지종은 1월 19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서 2016년 임시 중앙총회(의장 수현 정사)를 열고 신임 통리원장을 선출했다. 총원 16명중 결원 1명, 불참 1명으로 15명이 참석 성원을 이룬 신임통리원장 선출 총회에서는 인선 종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기는 1월 30일부터 3년간이다.

이번에 통리원장으로 추대된 인선 종

사는 경남 진양 출신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총지종 총무부장, 총무부장, 통리원장 직무대행 등 종단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인선 종사는 “그동안 시행한 ‘새 종풍 운동’과 교화와 수행을 박차를 가하고,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통불교종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종단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인선 종사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총지종 총무부장·총무



부장·전당건설위원·사회복지재단 이사·통리원장 직무대행·운천사 주교·관성사 주교·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중앙총회 보궐선거 2월 25일 실시

중선위, 19일 회의서 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은)는 1월 19일 중앙총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6대 중앙총회의원 보궐선거 및 재선거 공고안을 확정했다.

제16대 중앙총회는 현재 직선직 2명과 직능대표 2명, 비구니 1명이 공식인 상태다. 이날 중앙선거위원회는 1월 23일 선거공고를 내고 2월 1일부터 3일까지 후보를 접수받기로 했다. 또 2월 4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선직 2명의 선거교구는 쌍계사이며, 선거일

은 2월 25일이다. 직능대표는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가 2월 22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후임을 선출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국비구니회 내용으로 인해 선출되지 못했던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1석에 대한 재선거도 실시된다.

비구니 중앙총회의원은 2014년 10월 전국비구니 운영위원회가 10명의 후보를 선출한 뒤 선거 직전 1명의 후보가 사퇴해 1석이 공석이다.

중앙선거위 측은 “재선거를 1년 이상 끌어왔고, 이미 9명의 비구니 총회의원

목각 불

목각 천불전
만불전 건립

대공덕을
발원하시는 사찰
연락 요망

010-8617-5357

스님들이 활동 중이다. 또 법규위 심사는 전국비구니회의 총회의원 선출에 대한 부분이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노덕현 기자

1081호 INDEX

시방세계
전국 사찰불교대학
봄학기 신입생 모집

5



신문 밖의 禪

김개천 건축가
(국민대 조형대학 실내디자인과 교수)

14 · 15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 청동 촛대 세트**

Design 등록원

용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종류		규격 (세로/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통	
다기	거북이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다기	다기	(小)	15.5cm×18cm
		(大)	26cm×20cm
		(中) ㉠	22cm×14cm
향통	원형	(中) ㉡	20cm×13cm
		(小)	17cm×12cm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